

'전주형 도시재생 · 뉴딜 중심 도시로 도약'

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도시공간 재생 · 전주형 뉴딜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전주를 더 전주답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공간 재생사업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주만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은 24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전주형 뉴딜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및 지역 뉴딜 중심 도시로 도약'을 비전으로 한 도시공간 재생·전주형 뉴딜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사람·생태·문화 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 △활력이 넘치는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빛나는 기억, 다시 뛰는 심장 '시민의숲 1963' 프로젝트 추진 △전주형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 행복도시 조성이다.

먼저 전주형 도시재생 전략과 관련해 시는 △서화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전주역 앞 차마중길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집중한다. 다가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별과함께, 다가서당 프로젝트'도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등 전주다움을 담은 도시재생사업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남노송동 △진북동 도토리골 일대 △동완산동 투구봉마을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새마을을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주거 취약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덕진권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원을 메타버스 기반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7년까지 덕진권역 일대 약 50만㎡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 단지 등 거점공간 건립과 저탄소 친환경 특

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에 대해 지난해 시민의 의견을 담은 기본구상을 수립한 시는 올해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도시숲 조성, 경기장 재생, 문화시설 건립, 전시컨벤션 및 호텔 건립사업 등 각 세부 사업별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인 전시컨벤션·호텔 건립사업의 경우 지역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가 중추적 성장잠재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종합경기장 부지재생의 선결조건인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설계용역'도 올 상반기 중 완료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을 선도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 확보를 목표로

한 전주형 뉴딜도 본격화된다.

시는 올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주형 뉴딜이 본격화하는 중요한 해라고 판단해 정부 정책에 맞춰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의 과제를 확대 개편하고 성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사업 적극 발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밸리 확장 △소상공인 실시간 소통공간(디지털 커머스) 구축·운영 등이, 그린뉴딜 분야의 경우 △탄소중립도시 전환 신규과제 편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연내 마무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주형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형 뉴딜의 성과창출을 위해 신규 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힘쓰고, 지역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청·장년층 구직난·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위해 열려

직장을 구하는 전주지역 청·장년층과 인력을 찾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취직이 어려워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2년 제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나텍(주)(슈퍼캐패시터 및 연료전지 제조업체) △코웰패션(주)(이류도소매 및 쇼핑몰 물류센터) △광주원테크(주)(자동차 핸들 제조업체) △썬푸드에어(냉동 만두제조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4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면접을 한 업체들은 총 2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시간,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비해 예산 대비 효율이 높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올해 8회 이상 개최해 중·장년층과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적극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청 내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홍보 및 서류접수에 서부터 서류심사,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맡아서 대행해주는 채용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맞춤형 알선과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신규 공무원 대상 공간정보 활용 교육

전주시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직장문화 적응을 도왔다.

전주시는 24와 25일 이틀간 시청 정보교육장 등 3곳에서 신규직원이 업무에 신속히 적응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 활용 교육 및 보안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지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포함한 부동산·도로·건축물 등의 데이터와 항공영상 등의 영상자료

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반 민원업무에 비롯해 개발사업 계획수립·건축 인허가·재산관리·산림·농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간정보의 이해와 활용방법 △공간정보시스템 설명 및 실습교육 △공간정보 보안교육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이 직접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봄으로써 업무지식 습득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전북대, 바이오 의료기기 활성화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가·기업대표들, 사례 발표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가, 기업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24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오 의료기기 활성화·글로벌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이오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과 국내시장을 넘는 글로벌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의료기기 개발업체 대표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허영 한 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부이사장과 고명환 전북대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이 각각 '의료기기 R&D 정책과 해외 진출전략'과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에 나섰다. 특히 허영 부이사장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표준기반의 비교우위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한 후,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형 현장 실증과 가치경험 확보 △표준규격에 의한 개발 시험 및 임상시험과 연계한 성능(유효성·안전성) 검증 필수 △국내외 협력 R&D 확대와 (표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장 세분(Market Segment) 및 공동 투자 전략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 발표에 이어 바이오 의료기기를 실제로 개발하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의료기기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이문수 이노 테라피 대표는 지난 2019년 개발한 지혈제 '이노셀플러스'의 개발 사례와 의미 등에 대한 발표로 바이오 의료기기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노 테라피는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체내 출혈을 막는 데 쓰는 패치형 제품인 이노셀플러스를 개발하고, 그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 '외과치료·연구 연보(ASTR)' 등에 실리는 등 바이오 의료계에서 큰 반향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24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오 의료기기 활성화·글로벌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을 일으키고 있는 혁신 바이오 기업이다.

이에 앞서 시는 바이오 헬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바이오 헬스케어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토대로 시는 전국에서 전주시만 보유하고 있는 고유 인프라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중대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주만의 독창성을 클러스터에도 그대로 담아낼 것"이라며 "지금 풀어가고 있는 어려운 숙제들이 향후 10년 뒤에 전주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씨앗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북대, 바이오 헬스 추진단과 함께 굳건한 협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노인일자리 활용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니어클럽-전주에너지센터

전주지역 어르신들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운동에 앞장선다.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과 전주에너지센터(센터장 최우순)은 24일 노인일자리 활용을 전주의 기후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인

'에너지지킴이' 사업단은 교육을 통해 활동 역량과 경험이 충분한 시니어를 전문가로 양성, 전주시에너지센터에 파견하게 된다.

전주시에너지센터에 파견된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들은 △건물에너지진단 △에너지지킴이봉사 △전주시햇빛발전소 조사 업무 등 2060 탄소중립도시전주 실현을 위한 사업을 돕게 된다.

전주에너지센터에 파견되는 전주시니어클럽 에너지 지킴이들은 역량강화 교육 마치고 오는 4월부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